

KT 차기 대표이사 최종후보에 박윤영 낙점

30년 넘게 몸담은 ‘정통KT맨’… 조직안정·사업 연속성 도모

KT 내 독보적 B2B 전문가로 통해 대기업과 디지털 혁신 협력 주도 매출구도, 비통신 분야 확장 기여

보안 신뢰회복, 미래먹거리 발굴 등 취임 직후 고강도 쉐신책 마련 필요

KT 차기 대표이사 최종 후보로 30년 넘게 회사를 지켜온 내부 인사 박윤영 전 기업부문장(사장)이 낙점됐다. 보안 사고로 창사 이래 최대 위기를 맞은 KT가 ‘조직 안정’과 ‘사업 연속성’을 선택하면서, 박 후보는 취임과 동시에 신뢰 회복과 체질 개선이라는 이중 과제를 떠안게 됐다.

17일 KT 이사회후보추천위원회는 전날 박윤영 전 KT 기업부문장(사장)을 차기 대표이사 최종 후보로 확정했다고 발표했다.

박윤영 후보는 1992년 KT의 전신인 한국이동통신에 네트워크기술연구직으로 입사해 30년 넘게 KT에 몸담은 ‘정통 KT맨’이다. 그는 컨버전스연구소장, 미래사업개발단장, 기업사업건설팅본부장을 거쳐 2020년 기업부문장(사장)에 오르기까지 KT의 핵심 부서를 두루 거



‘정통 KT맨’ 박윤영 전 기업부문장(사장)이 KT 차기 대표이사 최종후보로 확정됐다.

/GEMINI로 생성한 이미지

쳤다.

특히 박 후보는 KT 내부에서 독보적인 ‘B2B(기업 간 거래) 전문가’로 통한다. 그는 기업부문장 재임 시절 스마트팩토리와 5G 사물인터넷(IoT) 사업 모델을 주도하며 현대중공업 등 주요 대기업과의 디지털 혁신 협력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냈다는 평가를 받는다. 당시 통신에 편중되었던 KT의 매출 구조를 비통신 분야로 확장하는 데 결정적인 기여를 했으며, 국가 재난망 프로젝트를 성공시켜 공공 부문에서의 신뢰도 탄탄하게 쌓

아왔다.

KT 이사회가 외부 인사가 아닌 박 후보를 선택한 배경에는 ‘조직 안정’과 ‘사업 연속성’에 대한 절박함이 깔려 있다는 분석이다.

KT 이사회후보추천위원회는 “박 후보가 급변하는 경영 환경 속에서 KT의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고, 대내외 신뢰를 조속히 회복할 책임자”라고 선정 이유를 밝혔다.

박 후보 앞에 놓인 현실은 가혹하다. 당장 발동에 떨어진 불은 ‘보안 신뢰 회

복’이다. KT는 최근 초소형 기지국(펄토셀)을 이용한 해킹으로 무단 소액결제 피해와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이 발생하며 창사 이래 최대의 보안 위기를 맞고 있다. 정부 민관합동조사단의 고강도 조사가 진행 중이며, 고객들의 집단 소송 움직임까지 포착되는 등 여론은 싸늘하다.

업계에서는 박 후보가 취임 직후 고강도 쉐신책을 내놓을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과거 SK커뮤니케이션즈 해킹 사태 당시 수습 경험이 있는 주형철 후보 등 외부 전문가를 제치고 내부 출신인 그가 선택된 만큼, 조직을 빠르게 장악해 보안 시스템을 원점부터 재설계하는 리더십을 보여줘야 한다. 기술적 허점으로 지적된 펄토셀 관리 미비 문제를 해결하고, 이탈하는 고객 마음을 되돌리는 것이 그의 첫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미래 먹거리 발굴 또한 시급한 과제다. 현 김영섭 대표 체제에서 추진해 온 ‘AICT(인공지능 정보통신기술)기업’으로의 전환을 중단 없이 이어가야 한다. 박 후보는 마이크로소프트(MS), 팰런티어 등 글로벌 빅테크와의 협력 관계를 유지하면서, AI 데이터센터 등 인프라 확충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올해 정

부의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프로젝트에서 고배를 마셨던 KT인 만큼, AI 인프라 분야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내는 것이 중요하다.

더불어 통신 본업의 경쟁력 강화도 필수적이다. 정부가 2027년부터 본격화할 6G(6세대 이동통신) 사업 지원에 발맞춰 AI-RAN(무선접속망) 등 차세대 네트워크 기술 선점에 나서야 한다. KT가 국내 이동 3사 중 유일하게 5G 단독모드(SA)를 운영하는 기술적 강점을 6G 리더십으로 연결하는 것이 박 후보의 장기적 과제다.

박 후보가 넘어야 할 마지막 관문은 내년 3월 주주총회다. 그는 의결 참여 주식의 60% 이상 찬성표를 받아야 정식 대표이사로 선임될 수 있다. 최대 주주인 국민연금을 비롯해 현대차그룹, 신한은행 등 주요 주주들을 설득해 압도적인 지지를 이끌어내는 과정이 필요하다.

박윤영 후보는 CEO 선정 직후 “KT가 직면한 위기 상황의 해법을 찾는 데 주력하겠다”며 “시장과 주주와의 약속을 지키고 변화와 혁신을 통해 KT의 자존심을 회복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김서현 기자 seoh@metroseoul.co.kr

‘청소년 SNS 금지법’ 적절성 두고 갑론을박

호주 ‘16세 미만 SNS 금지법’ 시행
방미통위, 주요 정책 과제로 검토
청소년 건강 보호 vs 과잉 규제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 위원장 후보자가 청소년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이용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히면서, 이른바 ‘청소년 디지털 섯다운’ 논쟁이 국내에서도 본격화될 조짐이다.

김 후보자가 모델로 언급한 호주가 최근 세계 최초로 ‘16세 미만 SNS 금지법’을 시행한 가운데, 국내 청소년의 스마트폰 과의존 실태와 맞물려 규제 도입의 적절성을 두고 갑론을박이 예상된다.

17일 <메트로경제신문> 취재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1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허위·조작 정보와 불법 콘텐츠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강조하며 청소년 보호 대책을 언급했다. 그는 특히 “최근 호주에서 도입한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의 SNS 이용 차단 정책을 국내에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비치며, 이를 주요 정책 과제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방미통위 측은 이후 “무조건적인 차단보다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권한 강화 등 다각적인 대안을 모색하겠다는 취지”라고 한발 물러섰으나, 후보자가 호주의 강력한 규제 모델을 ‘당연한 방향’으로 인용한 만큼 파장은 적지 않다.

김 후보자의 발언 배경에는 날로 심각해지는 청소년들의 디지털 기기 중독 문제가 자리 잡고 있다. 실제 통계 지표도 청소년 보호를 위한 적극적인 관리의 필요성을 뒷받침한다.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 17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 청소년의 97.3%가 스마트폰을 이용하고 있으며, SNS 이용률은 67.6%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발원은 “청소년이 스마트폰을 과도하게 사용할 경우 비만, 우울감, 수면장애 등 건강문제를 겪을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특히 자기조절 능력과 생활습관이 형성되는 시기인 청소년기에 장시간 스마트폰 사용은 신체활동 감소와 수면의 질 저하를 부르고, 타인과의 비교로 인한 스트레스가 가중되어 정서·행동 문제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

김현주 한국건강증진개발원장은 “12세 이전 과도한 스마트폰 사용은 성장 과정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으며, 특히 정서적으로 취약한 청소년에게는 심각한 건강 위해 요인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러한 부작용을 막기 위해 김 후보자가 벤치마킹 대상으로 지목한 호주의 ‘16세 미만 SNS 금지법’은 지난 10일(현지시간)부터 발효됐다. 이는 정부 차원에서 SNS 이용 연령을 강제로 규제하는 세계 최초의 사례다.

법에 따르면 16세 미만 청소년은 부모의 동의가 있어도 SNS 계정을 만들거나 유지할 수 없다. 대상 플랫폼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틱톡, 엑스(X·옛트위터), 유튜브 등 10개에 달하며, 이를 위반하고 미성년자의 가입을 방치한 기업에는 최대 4950만 호주달러(약 477억~500억 원)의 막대한 벌금이 부과된다. 플랫폼 기업들은 안면 인식이나 신분증 제출 등 연령 인증 절차를 의무적으로 강화해야 하며, 16세 이상임을 추론하는 ‘행동 기반 분석’ 기술까지 동원해야 한다.

그러나 호주의 실험은 시행 초기부터 거센 반발에 직면했다. 미국의 유명 커뮤니티 플랫폼인 ‘레딧(Reddit)’은 해당 법이 헌법상 보장된 정치적 의사소통을 부당하게 제한한다며 호주 대법원에 위헌 소송을 제기했다. 레딧 측은 “청소년의 정치적 발언권을 막아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뿐 아니라,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을 강요해 오히려 이용자 보안을 위협한다”고 주장했다.

실효성 논란도 여전하다. 가상사설망(VPN)을 이용한 우회 접속이나 부모 명의 도용, AI를 이용한 신분증 조작 등 청소년들이 규제를 피할 방법은 얼마든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호주 현지 인터넷 안전 감시 기관조차 “어떤 해결책도 100% 효과적일 수는 없다”며 한계를 시인한 바 있다.

그럼에도 호주 정부는 “협박에 굴복하지 않겠다”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호주 통신부 장관은 “우리는 플랫폼 기업이 아닌 호주의 부모와 아이들 편”이라며 법적 분쟁을 불사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IT 업계는 즉각 우려를 표하고 있다. 기술적 실효성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 등 부작용이 더 크다는 지적이다.

한 국내 IT 업계 관계자는 “호주 사례에서도 보듯 VPN(가상사설망)을 통한 우회 접속이나 부모 명의 도용을 기술적으로 완벽히 막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실효성 없는 규제를 지키기 위해 플랫폼 사업자에게 이용자의 생체 정보나 신분증 등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을 강요하는 것은 보안 위협을 키우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김서현 기자

잡코리아, 잡플래닛 인수로 플랫폼 입지 강화

내달 1일부터 편입 예정

잡코리아가 잡플래닛을 인수했다. 채용 정보를 제공하는 잡코리아가 기업 정보를 제공하는 잡플래닛을 통합 운영하게 돼 구인자들이 보다 풍부한 정보를 접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잡코리아는 브레인커머스가 운영하는 커리어 플랫폼 ‘잡플래닛’의 플랫폼 및 관련 사업을 영업 양수도 방식으로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거래는 지분 인수나 합병이 아닌, 잡플래닛 플랫폼과 이에 수반되는 인력·사업을 분리해 양수하는 구조다. 계약은 12월 중 체결됐으며, 12월 31일 종료일을 거쳐 2026년 1월 1일부터 잡플

래닛은 잡코리아의 자회사로 편입될 예정이다.

잡코리아는 이번 인수를 위해 별도 자회사를 설립했으며, 해당 법인은 향후 잡플래닛 유한회사로 사명을 변경할 계획이다. 인수 금액은 잡플래닛의 성장성과 잡코리아와의 시너지 가능성을 반영해 거래 규모가 산정됐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잡코리아는 이번 인수를 통해 채용 공고 데이터와 기업 리뷰 데이터를 결합해, 구직자에게 보다 입체적이고 신뢰도 높은 채용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향후 잡코리아의 채용 공고는 잡플래닛 플랫폼에 노출되고, 잡플래닛의 기업 리뷰 콘텐츠도 잡코리아 서비스에 순차적으로 연동될 예정이다.

/김서현 기자

“이번 주말에 변호이동 하면 다음주 개통”

이통3사, 노후 전산시스템 교체로 오는 20일 변호이동 업무 중단

이번 주말 이동통신 3사의 변호이동이 일시 중단된다. 이때 변호이동으로 구입한 휴대폰의 실제 개통은 다음 주 초에 이뤄질 예정이다.

17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는 오는 20일 하루 동안 변호이동 업무를 중단한다. 이는 SK텔레콤의 알뜰폰(MVNO) 영업전산 데이터 전환 작업에 따른 조치다.

이동통신사들은 통상 약 10년 주기로 영업 전산 시스템을 교체해 왔다. 이번 작업 역시 노후화된 시스템을 개선하고



ChatGPT에 의해 생성된 휴대폰 화면을 보고 있는 여성의 이미지.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차원에서 진행된다. SK텔레콤은 이번 전산 전환을 통해 시스템 용량을 증설하고 전반적인 운영 안정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주말에 휴대전화를 구매한 변호이동 고객은 오는 22일부터 순차적으로 개통이 이뤄진다. /김서현 기자 seoh@